

# 반의어를 이용한 한국어 어휘교육 방안

신희삼  
(동신대학교)

**Shin, Hee-sam. (2014). A Study on the Korean Vocabulary Education using Antonym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4), 297-316. This study aims to help foreigners learn Korean vocabularies easily by using antonyms. Because antonyms are basic materials for understanding the meanings of vocabularies, they are useful from the initial stage of vocabulary education. Using antonyms in Korean vocabulary education is effective when the students want to memorize the vocabularies quickly. We discussed three kinds of approaches to teaching antonyms. First, it is important to select the vocabulary list. The list of antonyms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the vocabulary level evaluation criterion of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econd, it is important to divide the students and text materials into beginning,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Third, it is important to make a suitable teaching method for each level. We want this paper to contribute to the Korean vocabulary education in many ways.

**주제어(Key Words):** 반의어(antonym), 어휘(vocabulary), 교육(education), 평가(evaluation), 중급의(intermediate), 고급의(advanced)

## 1. 서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 의미관계 연구에서 차지하는 반의어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사물을 파악하는데 이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동서가 동일하다. 대립관계 곧 반의 관계는 모든 언어에서 공통되는 특징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 반의어를 이용한 어휘 교육은 근거가 있고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어휘 의미 관계에 따른 어휘들은 어휘 확장과 어휘의 정확한 의미파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반의어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 확장 영역에서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 반

의어를 어휘 교육에 이용하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조현용(2000)은 반의어 연상 결과를 인용하면서 어휘 교육에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머릿속에 어휘를 저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조은혜·최경숙(2008)에서는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어휘 기억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어휘 관계로서 반의어 교육의 장점을 말한 이로는 한정일(1999), 유진(2003)을 들 수 있다. 문맥 관계를 다룬 예로는 홍윤기(2009)와 김서형(2013)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반의어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반의어 교육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반의어 학습 방안과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반의어에 대한 기존 주장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반의어 선정어휘는 기존 연구자들의 선정 목록을 참조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취하는 논의 방향은 본격적인 국어학적 접근보다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어휘 교육이라는 실용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에 맞추어 반의어의 개념과 기준을 재정리하고, 반의어 학습 방법과 학습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반의어 교육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반의어 개념과 기준은 한국어 어휘 교육 차원에서 재정리해야 한다. 둘째, 기존 연구자들의 반의어 선정을 참조하고, 현행 교재에 나와 있는 등을 참조해 각 단계별 반의어 어휘를 선정한다. 셋째, 각 단계별 학습 방안과 학습 모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반의 관계를 이용한 연구는 다른 의미관계 어휘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한다. 의미관계 관점에서 반의어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로 임지룡(1992)을 들 수 있다. 그는 반의어를 유동적인 성격의 반의 대립어와 고정적인 성격이 강한 상보 대립어, 방향 대립어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기존의 반의어 분류에 비해 세분화된 연구라 할 수 있다. 윤평현(2008)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용한 반의 관계 조건은 간결하고 명료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의어에 대한 언급은 학문적 관점에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반의어에 대한 규정은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어에 익숙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다소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교육 효과의 증대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고정과 유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반의어의 기준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본격적인 반의어 관계 연구 성과로 판단되는 것으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조현용(2000)은 어휘 교육에서 반의어를 이용하는 것이 어휘를 저장하는데 도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재 제작시 어휘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순히

반의어쌍만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같은 계열의 어휘를 묶어서 의미장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시 대화 전환간 반의어 제시라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둔 교수법을 제시하였다.

홍윤기(2009)는 반의 관계 구성 유형을 단어에서부터 속담까지 자세하게 다루어 반의 관계 유형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호응 구성과 동어반복 구성, 부정 표현 연결 표현은 반의어 어휘에 국한할 수 있는데 비해, 합성어 구성, 관용적 표현, 속담 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은 하나의 소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민우(2012)는 기존 한국어교재에서 반의어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반의어 목록 제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꼼꼼하게 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반의어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자료 보다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어휘 선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미기능을 이용한 문형 제시 또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급 단계와 고급 단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역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전의 반의어 관계 연구에서 교육 쪽으로 지평을 확장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김서형(2013)은 맥락적 반의어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핵심은 화용적 상황을 고려한 반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반의어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맥락이 각각의 담화 상황적 특성이며, 맥락에는 담화 공동체의 언어·문화적인 가치관이 담겨 있으므로 반의 관계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반의어의 교육용 목록의 선정 원리 및 제시 단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있다. 아쉬운 점은 그가 말한 것처럼 맥락적 반의어 목록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 연구의 미흡한 점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겠다.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합한 반의어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 방안과 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 3. 반의어의 개념과 기준

반의어에 대한 개념과 기준은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학문적인 개념 정리보다는 한국어 어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을 정리해 나가겠다. 먼저 용어 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반의어는 의미가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관계가 있는 말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또 다른 말로는 대립어, 반의어, 반대말, 반대어, 맞선말 등이 있다<sup>1)</sup>.

반의어의 조건은 두 단어가 의미자질 상으로 볼 때, 한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공

통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sup>2)</sup>. 예를 들면 아버지의 반의어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어머니, 아들, 딸 등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반의어 조건에 맞추어 본다면 아버지의 반의어는 어머니가 된다. 의미자질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아버지[인간+, [성숙+], [남자+], [자녀+]  
 어머니[인간+, [성숙+], [남자-], [자녀+]  
 아들[인간+, [성숙-], [남자+], [자녀-]  
 딸[인간+, [성숙-], [남자-], [자녀-]

위의 예를 반의어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의 반의어는 ‘어머니’이고 ‘아들’의 반의어는 ‘딸’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반의어로 ‘딸’이 되고, ‘어머니’의 반의어로는 ‘아들’이 되기도 한다. 사자성어에서 ‘부전여전’, ‘모전자전’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는 반의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의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상존해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반의어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김종택(1992)은 한 언어의 어휘들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게 하는 내부적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언어의 이원적 판단 기준이 대립적으로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서기제, 의지대립 기제, 주객대립기제, 위상 대립기제, 생사 대립기제, 친족, 온도 등이 있다. 주객 대립의 경우 상황에 따른 상대적 반의 관계에 해당한다.

임지룡(1995)에서는 반의어를 반의대립어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척도 반의어, 평가반의어, 정감 반의어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주관적인 가치나 감정에 따라 정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 외에 상보대립어와 방향 대립어가 있는데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절대적 의미의 반의어를 가리킨다.

한재영(2010)에서는 반의어를 상보 반의어, 정도 반의어, 관계 반의어로 나누고 있다. 상보반의어는 두 반의어가 어떤 개념적 영역을 상호배타적인 두 구역으로 양분하는 경우의 반의어를 뜻한다. 정도 반의어는 두 반의어가 양극단에 있어 그 중간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관계 반의어는 맞선 방향에 존재하거나 맞선 방향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대립쌍으로서 방향 반의어라고도 한다.

반의어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것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개념과 기준이다. 여기에서는 한

1) 여기에서는 학교문법에서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반의어로 정하였다.

2) 윤평현(2008:139)은 반의 관계 성립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가. 동질성 조건: 동일의미영역, 동일 문법범주

나. 이질성 조건: 대조적 배타성

국어 어휘 교육의 상황에 맞도록 반의어의 개념과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보겠다. 한국어 교육에서 반의어 교육은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반의어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고정적인 반의어와 유동적인 반의어 관계가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정적인 반의어는 반의어 대상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고, 유동적인 반의어는 상대적으로 두 개 혹은 세 개가 될 여지가 있다. 즉 일대 다수의 관계가 가능하다<sup>3)</sup>.

- (2) a. 남성↔여성, 살다↔죽다,  
b. 늙은이↔젊은이, 청년, 어린이, 뛰다↔걸다, 내리다, 멈추다

(2a)는 반의어 영역이 철저하게 상호 배타적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중간 단계가 없고 반의어는 한 쌍으로 고정된다. ‘남성’은 ‘여성’만을 반의어로 가지는 것이다. 동사인 ‘살다’도 ‘죽다’만을 반의어로 가진다. 반면에 (2b)는 상황과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질 수 있다. 즉 ‘늙은이’의 경우 고유어와 한자어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뛰다’는 다의어로서 ㄱ. 순간적으로 힘을 모아 자신의 몸을 허공에 뜨는 상태로 만들다. ㄴ. 가격이나 가치가 갑자기 오르다 ㄷ. 맥박이나 심장이 일정한 박동으로 움직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ㄱ에 대한 반의어는 ‘걸다’, ㄴ에 대한 반의어는 ‘내리다’ ㄷ에 대한 반의어는 ‘멈추다’가 해당된다<sup>4)</sup>. 또한 고정적 반의어에도 가치 판단이 상대적인 경우가 있다.

- (3) 앞↔뒤, 위↔아래, 부모↔자식,

위의 반의어 쌍은 상호간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축이나 기준점을 두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역시 중간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 ‘뒤’의 경우 ‘앞’은 다른 기준에서 볼 때, ‘뒤’가 될 수도 있다. ‘위’, ‘아래’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모’, ‘자식’의 경우는 혈연관계의 축에 따라 대립되는 경우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부모’가 ‘자식’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부모’가 될 수도 있다.

- (4) 길다↔짧다, 덩다↔춥다, 좋다↔나쁘다

3) 이는 김서형(2013:5)이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으로 파악한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와 유사한 주장은 손남익(2006)에서도 주장되었다. 그는 정도 반의어는 화자의 주관에 의해 판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이런 경우 원형의미론의 관점에서는 사전의 표제어는 원형에 가까운 의미로 뜻풀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뛰다’의 원형적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반의어가 나타난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예는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면서 중간단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길다’와 ‘짧다’도 상황에 따른 가치 판단에 의한 반의어이다. ‘덥다’, ‘춥다’에서는 ‘따뜻하다’, ‘서늘하다’란 중간단계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기후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습자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어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반의어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 a. 고정반의어(중간 단계 없음)  
절대적 반의어  
기준점
- b. 유동반의어(중간 단계 가능)  
가치판단에 의한

#### 4. 반의어 교육의 실제 모습과 반의어 목록 선정

전통적인 언어 교수법에서 어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의미의 계열관계에 속하는 동의어, 상하어, 반의어, 결합관계에 속하는 합성어, 혼성어, 관용어, 속담, 복합 관계에 속하는 다의어, 동음어 등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어휘력이 언어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어휘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기본 조건에 해당된다. 어휘력의 배가는 텍스트 이해력의 배가와 비례한다. 그러므로 어휘력의 효과적인 학습법은 언어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어휘 교육에서 반의어 학습은 어휘력 증진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반의어에 대한 인식은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리이다. 사람은 이원적인 것에 대단히 강하게 반응한다. 심지어 흑백논리에서 보듯이 중간단계가 없는 단순한 반의 관계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반의어에 대한 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민우(2012)에서는 대학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들에서 나타나는 반의어 양상을 분석 조사하였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의 경우에서 대부분이 일부 형용사와 동사의 활용과 관련하여 반의어 쌍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경희대와 연세대 교재에서 어휘 연습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면서 반의어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에서 반의어 부분은 형용사 중심의 반의어 제시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문형 제시나 예문 제시에서도 만족할 만한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5) 가다-오다-멈추다는 가다↔오다, 가다↔멈추다, 오다↔멈추다 세 가지가 가능하다.

어느 것을 반의어로 정하느냐 하는 것은 문맥에 의한 판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김서형(2013)은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를 분석하여 반의어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2003년의 7회 문제부터 2013년 30회 문제까지 문항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반의어 관계 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맥락에 관한 반의어 연구로 각 대학별 교재분석을 시도하였다<sup>6)</sup>. 중급 수준의 교재이다. 중급은 이제 어휘 교육의 증가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들 교재에서 공통적을 나타나는 현상은 단순한 반의어 제시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맥락적 반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연습의 부족으로 반의어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교재로서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2010년에 나온 '이화 한국어'를 분석해 보았다. 초급에 해당하는 1-2, 중급에 해당하는 3-4 고급에 해당하는 5-6을 모두 살펴보았는데 의외로 반의어에 대한 어휘 부분은 초급에서 약간 나올 뿐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6) a. 반대말을 쓰세요

배우다↔가르치다

던지다

사다

비싸다

b. 반대말을 연결하세요.

높다

시끄럽다

조용하다

낮다

맑다

좁다

넓다

두껍다

얇다

작다

크다

덥다

춥다

흐리다

중급과 고급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이를 보면 한국어 학습에서 반의어의 존재는 교재에 따라서는 생각 외로 아주 미미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반의어는 다른 어휘에 비해 그 연구 논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sup>7)</sup>.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어휘는 흔히 교육용 기본어휘로 불리기도 한다. 교육용 기본어휘의 조건은 빈도수가 많고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sup>8)</sup>. 그러므로 반의어 목록은 교육용 기본어휘에 근거를

6)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3-4, 성균관대학교 『배우기 쉬운 한국어』3-4, 연세대학교 『연세 한국어』3-1 4-2 등을 분석하였다.

7) 강현화(2011)에 따르면 2010까지의 어휘 분야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체 200여편의 연구 가운데 반의어 관계 연구는 8편에 그칠 만큼 미비한 실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두고 다소 증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9)</sup>.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는 어휘 관련 등급 별 평가 항목의 내용을 근거로 반의어 설정 근거를 마련하면 다음과 같다.

(7) 초급

1급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

기본 인칭대명사, 의문대명사

위치 관련 어휘

크다, 작다 같은 기본적인 형용사

오다, 가다 같은 기본적인 동사

2급

깨끗하다, 조용하다, 복잡하다 등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형용사

출발하다, 고치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

약속, 계획, 여행, 건강과 관련된 기본 어휘

자주, 가끔, 거의 등 기본적인 빈도부사

중급

3급

행복하다, 섭섭하다 등 감정 표현 어휘

늘어나다, 위험하다 등 사회현상과 관련한 간단한 어휘

참석하다, 찬성하다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기본적인 어휘

장점, 절약 등 기본적인 한자어

4급

일반적인 소재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신문 기사 등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

자연, 풍습, 문화, 사고방식, 경제, 과학, 예술, 종교 등 일반적인 사회현상과 관련한 핵심적인 개념어

8) 기본어휘란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의 집합으로 교과서, 잡지, 뉴스 방송 등에서 뽑아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며, 기초어휘는 학문적인 전망을 가지고 설정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언어표현 단위로서의 어휘 집합으로 어휘의 총수나 어휘의 범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서 설정 방법이 주관적이고 연역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허용 외(2005:153)

9) 한재영(2005:338)학습용 어휘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용도가 높은 고빈도의 어휘, 사용 범위가 넓은 어휘, 조어력이 높은 어휘, 기초적인 어휘, 학습 단계에 적절한 어휘.



## 고급

### 5급

사회현상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세부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아프다: 결리다, 노랗다: 누르스름하다)

자주 쓰이는 시사용어

### 6급

사회현상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

사회 각 영역과 관련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전문용어

## 5. 효과적인 반의어 학습 방안

반의어 학습은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학습 방법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학습에 관한 평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각 단계별 학습 방안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단계별 반의어 범주는 명사, 형용사, 동사로 한정하였다. 어휘 선정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는 급수 기준에 맞도록 선정하였다. 각 범주에 맞는 문형을 제시하고 문맥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예를 들어 보일 것이다.

각 단계별 목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어휘범주에서 가능한 방법으로는 반의어 쌍 찾기, 반의어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게임 활용하기 등이 있다. 문형 부문에서는 빈칸 채우기 어휘카드 활용법 등이 있다. 속담 표현에서는 속담을 제시하고 반의어 쌍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 문맥 제시법에서는 다의어의 개념과 각각의 뜻에 맞는 반의어 쌍을 지도한다. 이는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에 응용할 수 있다.

첫째, 말하기에서는 반복연습, 대체연습, 대화 외우기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반의어 쌍을 격자형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새로운 단어는 반드시 반의어를 말하게 한다. 반의어 쌍을 바꾸어 문장을 만드는 방법 또한 말하기 능력과 어휘 실력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듣기 방법이다. 반의어 쌍에 대한 발음과 올바른 해석을 들려준다. 이러한 방법은 듣기를 습관화 해 주는 효과를 가져 온다. 학습자들에게 문맥적 반의어를 들려주고 받아쓰도록 한다.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듣기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조별로 반의어의 뜻과 문장을 공동으로 구성하게 한다.

셋째, 읽기 방법이다. 읽기는 어휘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어휘를 많이 알면 읽기는 비례적으로 실력이 증가한다. 어휘에 대한 학습은 읽기 후보다 읽기 전이 더욱 효과가 높

다. 특히 반의어를 상기시켜 어휘의 의미를 학습자가 분명히 알도록 유도한다. 조별로 본문의 어휘를 반의어가 가능한 어휘별로 정리하는 과제를 내줘도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넷째, 쓰기 방법이다. 쓰기 지도에 어휘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문장에서 반의어 사용을 들 수 있다. 상반된 반의어를 쓰게 하고, 익숙해지면 문장을 만들도록 한다. 쓰기에 반의어를 적용하는 단계는 고급 단계가 적합하다. 반의어를 이용한 문장 쓰기 이후에는 속담 같은 난이도 있는 쓰기 방법으로 넘어가면 된다.

## 5.1 초급 단계

### 5.1.1 어휘 범주

#### (8) 명사<sup>10)</sup>

시간: 아침↔저녁, 오전↔오후, 밤↔낮

공간(방향): 위↔아래, 곁↔속, 앞↔뒤, 전↔후

친족어휘(사람): 여자↔남자, 여성↔남성, 아빠↔엄마, 아버지↔어머니, 아들↔딸

색깔: 흑↔백

#### (9) 형용사

평가: 좋다↔나쁘다, 쉽다↔어렵다, 재미있다↔재미없다

감각: 춥다↔덥다, 달다↔쓰다, 짜다↔싱겁다

감정: 슬프다↔기쁘다, 좋다↔나쁘다

상태: 가볍다↔무겁다, 같다↔다르다, 맞다↔틀리다, 높다, 낮다

색채: 희다↔검다, 붉다↔푸르다

10) 위의 예들은 다음과 같이 어휘장을 이용하면 연상작용으로 인하여 어휘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들중 명사는 다음과 같이 친족어장, 공간감각어장, 온도어장, 미각어장, 색채어장, 착탈어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친족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공간감각어: 크다↔작다, 길다↔짧다, 높다↔낮다, 깊다↔얕다, 멀다↔가깝다, 넓다↔좁다, 굵다↔가늘다, 두껍다↔가늘다

온도어: 춥다↔덥다, 차갑다↔뜨겁다, 서늘하다↔따뜻하다, 미지근하다↔뜨뜻하다

미각어: 달다↔쓰다, 짜다↔싱겁다

색채어: 희다↔검다, 빨강다↔푸르다

착탈어: 입다↔벗다, 쓰다↔벗다, 신다↔벗다, 끼다↔빼다, 차다↔풀다

## (10) 동사

움직임: 가다↔오다, 가다↔멈추다, 멈추다↔움직이다

행위: 사다↔팔다, 살다↔죽다, 자다↔깨다

느낌: 알다↔모르다, 늦다↔이르다, 빠르다↔늦다

## 5.1.2 문형

## (11) 명사

주로 조사와 관련된 문형을 사용한다.

X와/과Y                    아침과 저녁에 운동하세요.X부터 Y까지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합니다.X입니까? Y입니까?      흰색입니까 검은 색입니까?X합니까? Y합니까        오늘합니까 내일합니까?X보다Y                      겉보다 속이 좋아요.

## (12) 형용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거나 Y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X는가 Y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알아보세요.X면서 Y                      쉬우면서 어려운 질문이군요.

## (13) 동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는지 Y는지                오는지 가는지 말을 하세요.X다가 Y                      가다가 멈추다가 해도 됩니다.X다가 Y다가                자다가 깨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 5.1.3 속담 표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5.1.4 문맥 제시법

(14) 명사

단순한 기계↔복잡한 기계  
신의 섭리는 단순하다↔오묘하다

(15) 형용사

물건이 괜찮다↔나쁘다  
문제가 괜찮다↔어렵다  
먹기가 괜찮다↔쉽다

(16) 동사

제주도에 가다↔오다  
시계가 잘 가다↔멈추다  
맛이 갔다↔싱싱하다

## 5.2 중급단계

### 5.2.1 어휘 범주

(17) 명사

일상어휘: 결혼↔이혼, 신랑↔신부  
일반적 추상 어휘: 분실↔습득, 주의↔부주의  
직장관련 어휘: 판매↔구입, 휴직↔복직  
기본적 한자어: 장점↔단점, 절약↔낭비, 공통점↔차이점

(18) 형용사

평가: 이기다↔지다, 많다↔적다, 있다↔없다  
성격: 적극적이다↔소극적이다, 활발하다↔조용하다, 급하다↔느긋하다  
감정: 자랑스럽다↔부끄럽다, 불편하다↔편리하다  
상태: 뽕뽕하다↔마르다, 바쁘다↔한가하다, 싸다↔비싸다

## (19) 동사

움직임: 입장하다↔퇴장하다, 연결하다↔끊기다, 열다↔닫다  
 행위: 찾다↔숨다, 절약하다↔낭비하다, 결혼하다↔이혼하다  
 느낌: 깜빡하다↔기억하다, 깜빡하다↔떠오르다,

## 5.2.2 문형

## (20) 명사

주로 조사와 관련된 문형을 사용한다.

X와/과Y	<u>결혼</u> 과 <u>이혼</u> 의 차이점을 말하세요.
X부터 Y까지	<u>작년</u> 부터 <u>금년</u> 까지 일합니다.
X입니까? Y입니까?	<u>신랑</u> 입니까 <u>신부</u> 입니까?
X합니까? Y합니까	그 사람은 <u>절약</u> 합니까 <u>낭비</u> 합니까?
X보다 Y	<u>휴학</u> 보다 <u>복학</u> 이 좋아요.

## (21) 형용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거나 Y거나	<u>이기</u> 거나 <u>지거</u> 나 둘 중 하나입니다.
X는가 Y는가	누가 <u>있는</u> 가 <u>없는</u> 가 알아보세요.
X면서 Y	<u>급하면서</u> <u>한편으로는</u> 는 <u>느긋한</u> 성격이군요.

## (22) 동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는지 Y는지	<u>입장</u> 하는지 <u>퇴장</u> 하는지 말을 하세요.
X다가 Y	<u>절약</u> 하다가 <u>낭비</u> 하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X다가 Y다가	<u>깜빡</u> 하다가 <u>기억</u> 하다가 요즘 정신이 없었습니다.

## 5.2.3 속담 표현

모르는 게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혈만 한 아우 없다  
 그 스승에 그 제자  
미운 정 고운 정 다 듣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 5.2.4 문맥 제시법<sup>11)</sup>

(23) 명사

생머리가 어울린다↔파마머리가 어울린다.  
원래 생머리아↔원래 곱슬머리아

(24) 형용사

성품이 조용하다↔활발하다  
실내가 조용하다↔시끄럽다  
조용한 시골이 좋다.↔번잡한 도시가 싫다.

(25) 동사

문을 열다.↔문을 잠그다.  
단추 두 개를 열다.↔단추를 잠그다.

## 5.3 고급단계

### 5.3.1 어휘 범주

(26) 명사

사회현상에 관한 추상적인 어휘: 성장↔퇴보, 승리↔패배  
직장관련 특정적 어휘: 형식↔내용, 신제품↔구제품 호평↔악평  
전문용어: 매출↔매입, 사교육↔공교육, 상한가↔하한가

(27) 형용사

평가: 찬성하다↔반대하다, 평범하다↔특별하다, 있다↔없다  
성격: 시원하다↔답답하다, 독립적이다↔의존적이다, 느긋하다↔급하다  
감정: 허전하다↔충만하다, 괴롭다↔즐겁다  
상태: 진화하다↔퇴보하다, 살아남다↔도태되다, 희미하다↔뚜렷하다

(28) 동사

움직임: 참가하다↔빠지다, 짓다↔다물다, 날다↔기다  
행위: 만나다↔헤어지다, 인하하다↔인상하다, 취직하다↔퇴직하다

---

11) 문맥은 일종의 화용적 용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반의어가 그 자체로 다의어인 경우 문맥적 상황에 따라 반의어가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 5.3.2 문형

#### (29) 명사

주로 조사와 관련된 문형을 사용한다.

X와/과 Y	<u>성장</u> 과 <u>퇴보</u> 의 한계점은 어디인가요?
X부터 Y까지	<u>상한가</u> 부터 <u>하한가</u> 까지 얼마입니까?
X입니까? Y입니까?	<u>매출</u> 입니까 <u>매입</u> 입니까?
X합니까? Y합니까	그 경기는 <u>승리</u> 합니까 <u>패배</u> 합니까?
X보다 Y	<u>사교육</u> 보다 <u>공교육</u> 이 좋아요.

#### (30) 형용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거나 Y거나	<u>찬성</u> 하거나 <u>반대</u>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X는가 Y는가	<u>진화</u> 하는가 <u>퇴보</u> 하는가 이대리가 알아보세요.
X면서 Y	<u>시원</u> 하면서 <u>답답</u> 하기도 하군요.

#### (31) 동사

연결어미가 주로 쓰인다.

X는지 Y는지	<u>참가</u> 하는지 <u>빠지</u> 는지 연락해 주세요.
X다가 Y	그 커플은 <u>만나다</u> 가 <u>헤어지다</u> 가 정신이 없습니다.
X다가 Y다가	요금을 <u>인상</u> 하다가 <u>인하</u> 하다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 5.3.3 속담 표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병 주고 약 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뻗는다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

### 5.3.4 문맥 제시법

#### (32) 명사

생머리가 어울린다→파마머리가 어울린다.  
 원래 생머리아→원래 곱슬머리아

## (33) 형용사

성품이 조용하다↔활발하다

실내가 조용하다↔시끄럽다

조용한 시골이 좋다.↔번잡한 도시가 싫다.

## (34) 동사

문을 열다.↔문을 잠그다.

단추 두 개를 열다.↔단추를 잠그다.

## 6. 학습모형 방안

5장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학습 모형을 만들어 보겠다. 이 학습 모형은 반의어만을 대상으로 한 모형이다. 시간은 상황에 따라 30분으로 할 수도 있고 20분으로 줄여서 만들 수도 있다. 횟수는 한달에 한번 혹은 학기당 두 번 정도로 상황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하면 된다.

### 6.1 초급 모형

학습 단계: 초급

학습목표: 초급 단계의 반의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

학습 내용: 반의어(명사, 형용사, 동사), 속담, 문형, 문맥

학습단계	학습 내용	준비물	유의사항
도입	1. 반의어 목록을 소개한다 2. 어휘범주, 문형, 문맥에 따른 반의어	P P T 자료	수업효과를 위해 사진, 그림 실물, 자료 등을 이용한다.
전개	반의어의 개념과 기준을 이해시킨다.	P P T 자료	
실습	1. 반의어 연결하기 2. 반의어 생각하기 3. 반의어 문형 빈칸 채우기 4. 반의어 문맥 빈칸 채우기	어휘 카드	비슷한 단어들을 제시해 준다.



정리	1. 유사한 문제를 제시해본다. 2. 유의어의 경우도 생각해 본다. 3. 친족어나, 온도어의 경우 범위를 확장해 본다.		그룹별로 정리해 보게 한다.
확인	1. 질문지를 통해 쪽지 시험을 실시한다. 2. 대화 상황을 가정하여 시험해 본다.	질문지	중요한 핵심 문제만 선별한다.
차시예고	1. 중급 단계의 반의어 예습을 과제로 낸다. 2. 준비물을 확인하고 지시해 준다.		적당한 분량의 과제를 내준다.

## 6.2 중급 모형

학습 단계: 중급

학습목표: 중급 단계의 반의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

학습 내용: 반의어(명사, 형용사, 동사), 속담, 문형, 문맥

학습단계	학습 내용	준비물	유의사항
도입	1. 반의어 목록을 소개한다 2. 어휘범주, 문형, 문맥에 따른 반의어	PPT자료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는 선정하지 않는다.
전개	1. 선정된 반의어에 대한 뜻풀이를 해준다. 2.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PPT 자료	뜻풀이는 문장이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준다.
실습	1. 반의어로 문장 만들기 2. 반의어 문형 빈칸 채우기 4. 반의어 문맥 빈칸 채우기	어휘 카드	개인별로 교정해 준다.
정리	1. 반의어 문장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2.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는 원인을 설명한다.		교사가 보충설명해 준다.
확인	1. 쪽지 시험을 실시한다. 2. 짝을 이뤄 대화 상황을 재현한다.	질문지	많이 틀린 문항은 다시 복습한다.
차시예고	1. 고급 단계의 반의어 예습을 과제로 낸다. 2. 준비물을 확인하고 지시해 준다.		적당한 분량의 과제를 내준다.

### 6.3 고급 모형

학습 단계: 고급

학습목표: 고급 단계의 반의어를 말하고 쓸 수 있다.

학습 내용: 반의어(명사, 형용사, 동사), 속담, 문형, 문맥

학습단계	학습 내용	준비물	유의사항
도입	1. 반의어 목록을 소개한다. 2. 어휘범주, 문형, 문맥에 따른 반의어	PPT자료	고급 단계 인만큼 반복설명을 해준다.
전개	1. 선정된 반의어에 대한 뜻풀이를 해준다. 2. 문맥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다	PPT 자료	교사가 보충설명해 준다.
실습	1. 반의어 연결하기 2. 반의어 생각하기 3. 반의어 문형 빈칸 채우기 4. 반의어 문맥 빈칸 채우기	어휘 카드	개인별 그룹별로 지도한다.
정리	1. 반의어 문장의 적합성을 판정한다. 2. 유의어를 함께 말해 본다.		유의어와 반의어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확인	1. 쪽지 시험을 실시한다. 2. 개인별로 발표를 시킨다. 3. 학습자 모국어로 번역해 본다.	질문지	문장 구성 방법을 사용한다.
차시예고	1. 유의어에 대한개념과 기준 알아보기 2. 준비물 확인 지시하기.		복습과 아울러 적당한 분량의 숙제를 내준다.

## 6.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의 반의어 교육 방안에 관해 그 중요성을 제기하고 대안으로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학습 방법과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반의어 개념과 기준은 한국어 어휘 교육에 맞추어 재정리했으며, 반의어 선정은 기존 연

구자들의 방법을 참조하고, 현행 사용되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인용하였는데,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급별 평가 항목에 근거하였다.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반의어 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각 단계별 학습 모형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이론적인 면에만 치우친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학습 방안과 이에 따른 학습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반의어의 개념과 기준을 한국어 어휘 교육에 적합하도록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 반의어는 고정반의어와 유동 반의어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분류의 이점은 어휘에 대한 유연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셋째, 반의어 목록 선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반의어에 대한 비중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것은 다시 반의어의 단계별 교육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재에서는 반의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넷째, 효과적인 반의어 학습 방안에서는 단계별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대상으로 반의쌍, 문형, 문맥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학습 모형을 각 단계별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어 어휘 교육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문형과 문맥에 관한 구체화되고 정형화된 틀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으로 반의어 선정 목록, 학습 방안 등이 잘 어우러진 통합적 방법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화.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서울: 박이정.
- 강현화. (2011). 한국어 어휘교육 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회 간 이중언어학 제47호*, 453-479.
- 김서형. (2013). 맥락적 반의 관계 어휘의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회 간 이중언어학 제 53호*, 2-24.
- 김종택. (1992). *국어어휘론*. 서울: 탑출판사.
- 김혜은. (2007).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교육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금현. (2002).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연어 학습 방안. *한국어교육연구회 간 국어교육 109*, 217-247.
- 손남익. (2006). 국어 반의어의 존재 양상. *한국어어미학회 간 한국어 의미학 19*, 65-83.

- 안경화. (2007). *한국어 교육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우형식·배도용.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이해*. 부산: 부산외대 출판부.
- 윤평현. (2008). *국어의미론*. 서울: 역락.
- 이민우. (2012). 반의 관계를 이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이중언어학회 간 이중언어학 제49호*, 220-242.
- 이정희. (2003).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연구*. 서울: 박이정.
- 임지룡. (1995). *국어 의미론*. 서울: 탐출판사.
- 조현용. (2000).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서울: 박이정.
- 한재영·박지영·현운호·권순희·박기영·이선웅·김현경. (2010). *한국어 어휘 교육*. 파주: 태학사.
- 한재영·박지영·현운호·권순희·박기영·이선웅. (2005). *한국어교수법*. 서울: 태학사.
- 허연임·윤영·권경임·이을지·최우진. (2010). *이화 한국어 1-6*,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욱·박동호.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개론*. 서울: 박이정
- 홍윤기. (2009). 문장에서의 반의관계 실현 방식 연구. *한국어교육*, 20(3), 185-204.

### 신희삼

520-714 전남 나주시 건재로 185  
동신대학교 인사대 한국어교원학과  
전화: 010-2610-2383  
이메일: heesam3@dreamwiz.com

Received on October 1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5, 2014

Accepted on December 5, 2014